

EU의 대ASEAN FTA 추진 현황과 한·EU 교역에 대한 영향 전망

강 유 덕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백 유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jbaek@kiep.go.kr, Tel: 3460-1075)

1. EU와 ASEAN 간의 교역, 투자 관계
2. EU와 ASEAN 간의 FTA 추진배경 및 전개과정
3. EU와 ASEAN 회원국 간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예상효과
4. 한국의 대EU 수출에 대한 영향



주요 내용

- ▶ EU와 ASEAN은 2007년 5월 두 지역 간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EU와 ASEAN 개별국 간 FTA 체결을 진행 중임.
 - EU는 ASEAN과의 교역 및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음. ASEAN은 EU의 6위 교역대상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대상국임.
 - 지역 대 지역 방식의 FTA 협상을 선호하던 EU는 2009년 이후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회하여 싱가포르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베트남과도 추진에 합의함.
- ▶ EU·ASEAN FTA는 EU와 ASEAN 개별국의 GDP 및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임.
 - EU·ASEAN FTA 체결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 EU 경제에 0.02~0.23%의 GDP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완전개방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ASEAN 주요국은 10% 내외의 총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게 되며, 실질임금수준 또한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후생이 증가함.
- ▶ EU와 ASEAN 국가들 간의 FTA는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EU 시장에서 컴퓨터 및 관련 부품, 광학용품, 전기기계, 가전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ASEAN과 경합할 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도 ASEAN産 유럽기업 제품과 경쟁하게 됨.
 - 향후 EU의 대ASEAN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투자전환 (trade diversion)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 ▶ 이에 대비하여 한·EU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함.
 - EU와 ASEAN 회원국 간 양자 FTA 체결 및 발효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전에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한편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해도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다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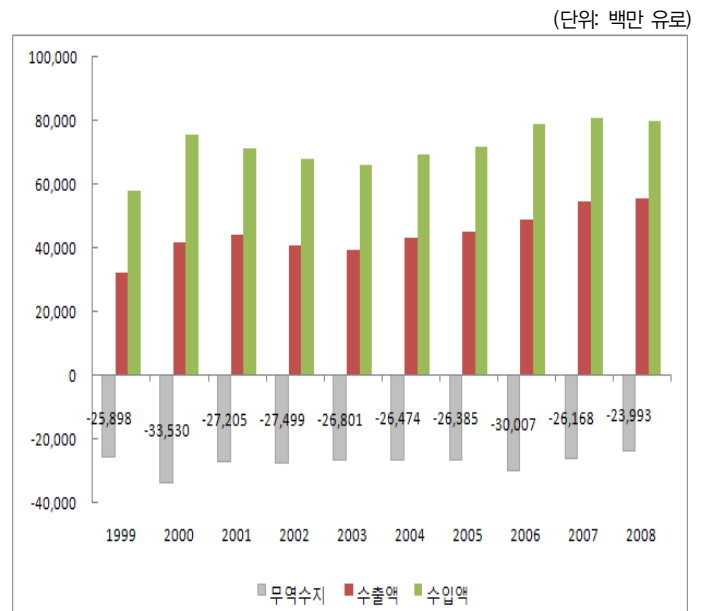
- EU와 ASEAN은 2007년 5월 두 지역 간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EU와 ASEAN 개별국 간의 FTA로 변경하여 추진 중임.
 - EU는 2006년 역외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부터 한국 및 ASEAN과의 FTA 협상 추진을 시작함.
 - EU는 ASEAN의 1위 수출시장, 3위 수입대상국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투자국으로서 교역 및 투자 규모 면에서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음.
 - ASEAN은 EU의 5위 수출, 수입 대상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대상국임.
 - 협상 초기에는 두 지역이 모두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간 접근방식을 추구하였으나 현재는 EU와 ASEAN 개별 국가와의 FTA로 변경됨.
- EU와 ASEAN 국가들 간의 FTA는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 유치, 해외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1위 투자국인 한편, ASEAN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교역국이며 우리나라는 ASEAN의 3위 투자국임.
 - EU와 ASEAN 간의 FTA는 양쪽 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히 우리나라의 대EU 수출과 투자 유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ASEAN과 FTA를 체결, 발효 중에 있으며 EU와의 FTA도 공식서명을 앞두고 있음.
 - 한·ASEAN FTA의 발효(발효시점): 상품부문(2007년 6월), 서비스부문(2009년 5월), 투자부문(2009년 9월).
 - 본고에서는 EU와 ASEAN 간의 FTA 추진 배경과 현황,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함.

2. EU와 ASEAN 간의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관계

- EU와 ASEAN의 교역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EU의 대ASEAN 교역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나타냄,
 -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EU와 ASEAN의 교역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음.
 - 그러나 EU는 매년 200억~300억 유로의 대ASEAN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은 적자 폭이 다소 감소하여 2008년 240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그림 1. 연도별 EU의 대ASEAN 교역 추이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2008년 ASEAN은 EU의 제6위 교역대상국으로 1,350억 유로의 교역을 기록함.
 - EU의 대ASEAN 교역은 EU 총대외교역(역내교역 제외)의 4.7%를 차지하며 이는 미국(15.2%), 중국(11.4%), 러시아(9.7%), 스위스(6.2%), 노르웨이(4.7%)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인접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에너지수입원인 러시아를 제외할 경우, ASEAN은 미국, 중국에 이어 EU의 세 번째로 중요한 교역대상국임.

-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볼 경우 2008년 EU의 대ASEAN 수출과 수입은 각각 556억 유로(총수출의 5.1%, 5위)와 791억 유로(4.2%, 6위)를 기록함.

■ 2008년 EU는 ASEAN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서 1,436억 유로의 교역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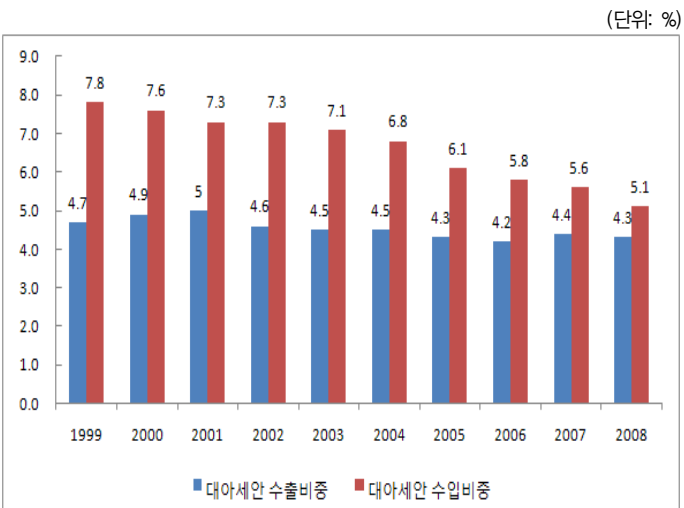
- ASEAN의 전체 교역에서 대EU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9%로서, 아시아 상위 교역상대국인 중국(11.9%), 일본(11.3%) 다음으로 높음.

- EU는 ASEAN의 제1위 수출대상국이자 제3위 수입대상국이며, ASEAN의 대EU 수출은 790억 유로(총수출의 11.7%), 수입은 647억 유로(10.1%)를 기록함.

■ EU의 대ASEAN 수출입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 비중은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1999년 7.8%를 기록했던 대ASEAN 수출비중은 2008년에는 5.1%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수입비중은 4%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연도별 EU의 대ASEAN 수출입비중 추이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EU는 ASEAN에 주로 자본재를 수출하고 소비재를 수입하는 교역구조를 나타냄.

- EU의 주요 대ASEAN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기계류 및 운송 설비, 산업 설비 및 장비, 발전기기 등을 들 수 있고,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농산물, 화학제품, 섬유 및 의류 등이 있음.

- 농산물(1100), 기타 공산품(2700), 의류(2600) 제품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아 EU의 대ASEAN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이 품목들을 중심으로 발생함.

표 1. EU의 대ASEAN 교역품목(2008년)

(단위: 백만 유로)

SITC Rev. 3 품목군	EU의 대ASEAN 수출(비중)	EU의 대ASEAN 수입(비중)
0000 - 전체	55,676(100.0)	79,296(100.0)
1000 - 1차 산품	5,791(10.4)	17,144(21.6)
1100 - 농산물	3,501(6.3)	12,712(16.0)
1200 - 연료 및 광물제품	2,291(4.1)	4,432(5.6)
2000 - 공업품	47,629(85.5)	61,185(77.2)
2100 - 철강제품	1,758(3.2)	616(0.8)
2200 - 화학제품	7,120(12.8)	7,700(9.7)
2300 - 기타 반제품	3,422(6.1)	3,695(4.7)
2400 - 기계 및 교통 설비	30,857(55.4)	32,180(40.6)
2410 - 사무 및 통신 설비	10,679(19.2)	23,083(29.1)
2420 - 운송설비	6,383(11.5)	2,822(3.6)
2430 - 기타 기계류	13,711(24.6)	6,274(7.9)
2500 - 섬유류	516(0.9)	871(1.1)
2600 - 의류	225(0.4)	4,965(6.3)
2700 - 기타 공산품	3,714(6.7)	11,157(14.1)
3000 - 기타	1,037(1.9)	45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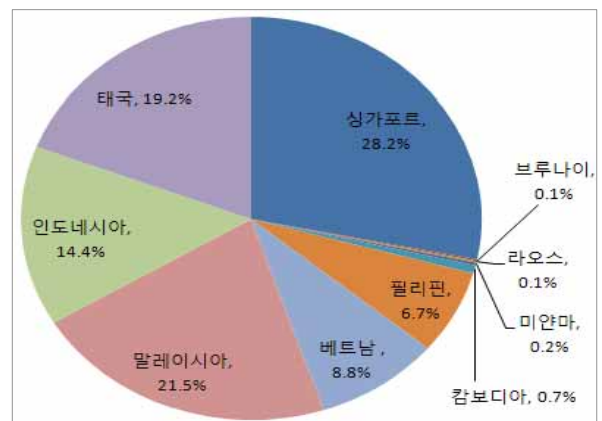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EU는 ASEAN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활발하게 교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ASEAN 국가와의 무역에서 큰 적자 폭을 나타냄.

- 2008년 EU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의 교역이 전체 대ASEAN 무역에서 80% 이상을 차지함.

○ EU·ASEAN 전체 교역에서 28%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EU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유지해왔으며, EU는 싱가포르의 제1교역대상국임.

그림 3. EU와 개별 ASEAN 회원국 간 교역비중(2008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EU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ASEAN 8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각각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발생함.

표 2. EU와 ASEAN 회원국별 교역 상황(2008년)

	대ASEAN EU 수출	대ASEAN EU 수입	대ASEAN EU 무역수지
싱가포르	22,058	16,115	5,943
브루나이	170	12	158
라오스	65	137	-72
미얀마	104	185	-81
캄보디아	152	730	-578
필리핀	3,753	5,366	-1,613
베트남	3,370	8,586	-5,216
말레이시아	11,578	17,534	-5,956
인도네시아	5,975	13,567	-7,592
태국	8,474	17,460	-8,986
총액	55,699	79,692	-23,993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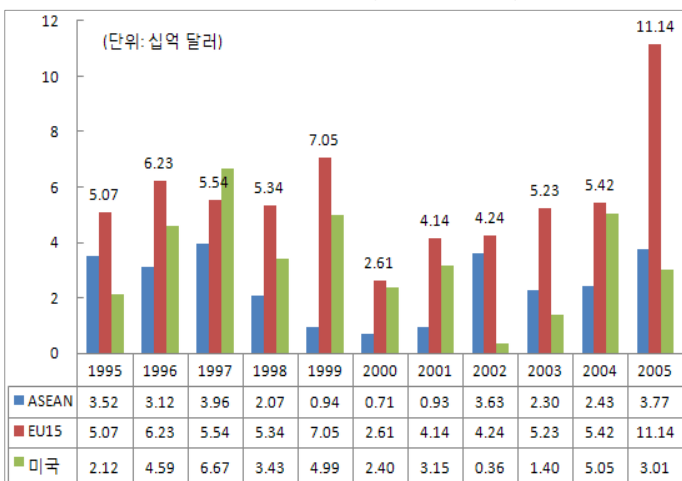
나. 투자관계

- EU는 ASEAN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으로 역내 회원국 및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대ASEAN 투자액을 기록함.

- 2005년 EU의 대ASEAN FDI는 1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ASEAN FDI 유입의 25%를 차지함.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가 발효된 2002년부터는 역내 경제자유가 확대되면서 ASEAN 회원국 간 FDI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EU는 ASEAN의 제1위 투자국임.

그림 4. 주요국의 대ASEAN FDI 추이(1995~2005년)



자료: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tween the EU and ASEAN(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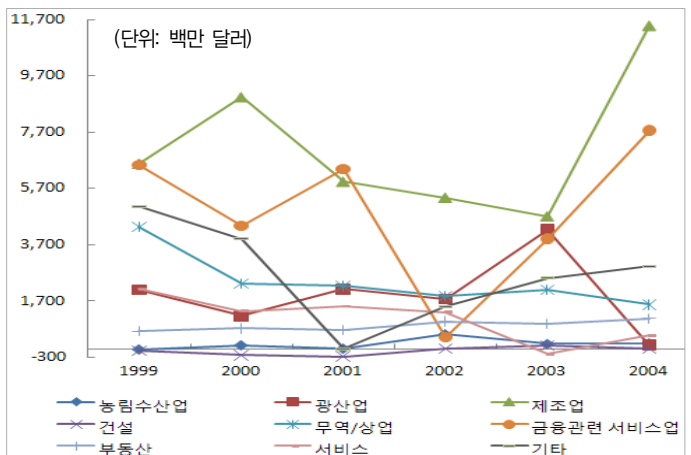
- EU의 대ASEAN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의 전 산업부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광산업에 대한 FDI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2003년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70% 이상이 집중됨.

- 2003년 광산업에 대한 EU의 투자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투자액의 23%에 달하는 115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나 2004년에는 1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함.

- 농림수산업, 부동산, 서비스,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의 변화가 미미함.

그림 5. EU의 대ASEAN 산업별 FDI 추이(1999~2004년)



자료: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tween the EU and ASEAN(2009).

2. EU·ASEAN FTA 추진배경 및 전개과정

가. EU의 대ASEAN FTA 전략의 배경

- 2000년대 중반 이후 EU는 역외국과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 2000년대 중반까지 EU는 WTO 차원의 통상협상에 주력하여, 양자적 차원의 FTA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를 추진함.¹⁾

- EU가 통상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게 된 계기로는 1) DDA 협

1) 1999~2004년 동안 EU는 실질적으로 FTA 협상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여기에는 WTO 통상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했던 파스칼 라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의 개인적인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됨.

상 지연과 협상의제 축소, 2) 미국의 FTA 통상정책 변화, 3) 동아시아 신흥경제권의 급부상을 지적할 수 있음.

- EU의 산업단체와 기업인협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시장에서의 시장접근성 강화와 역차별 방지를 위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²⁾

■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를 통해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한국과 함께 ASEAN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함.

- 2005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리스본전략의 수정안을 발표함.³⁾

○ 수정안은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개방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 무렵 피터 만델슨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세심하게 고안된 수준 높은 양자적 FTA의 경우 EU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함.

- 2006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Global Europe Initiative를 발표하여 역외국과의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할 것을 발표함.

○ 본 계획안에서 집행위원회는 EU 기업들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교역은 물론, 서비스와 투자 부문의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가능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것임을 밝힘.

- FTA 상대국의 선정은 1) 시장잠재력(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2) EU의 수출에 대한 보호수준, 3) EU의 경쟁국가와의 FTA 추진 여부 등 경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

○ 이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는 한국, MERCOSUR(남미 공동시장)와 함께 ASEAN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함.

■ ASEAN은 EU가 제시하는 FTA 상대국으로서의 조건에 부합함.

- ASEAN의 경제규모는 약 1조 4,900억 달러로 단일국 기준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며, 2000~07년 연평균 5.5%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함.

- ASEAN은 EU의 주요 교역국으로 2009년 대ASEAN 수출은 EU 전체 수출의 4.6%로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5.7%로 6위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ASEAN은 비교적 높은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FTA를 통해 거둘 수 있는 무역장벽철폐효과가 큼.

○ ASEAN은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관세(Custom surcharges), 기술장벽(Technical Measure), 제품특성 상 요건(Product characteristic requirement), 세관 규칙 및 절차(Customs rules and procedures), 관세 이외의 추가부과금(Additional charges)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ASEAN이 EU와 기계설비, 화학 부문에서 경쟁 중인 일본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EU의 대ASEAN FTA 추진동기로 작용함.

○ EU는 한·미 FTA 협상 개시로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을 우려하여 한·EU FTA 추진을 결정한 전례가 있음.

나. ASEAN의 대EU FTA 전략의 배경

■ ASEAN 회원국들은 2007년 ASEAN 헌장의 발표를 통해 기존의 AFTA(ASEAN Free Trade Area)를 한층 발전시켜 단일시장을 구성하는 것에 합의함.

- 1999년 ASEAN은 ASEAN Vision 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역내 경제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1992년부터 실시된 AFTA를 심화·완성을 추진함.

- 경제통합을 위한 의사결정 및 통합의 이행과정에서 ASEAN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경제규모 및 발전수준, 정부형태, 사회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

- 그러나 중국과 인도와 같이 주변에 위치한 거대 신흥경제국의 부상으로 인해 대외환경이 더욱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아

2) Business Europe Position Paper(2002. 7. 16), European Service Forum Position Paper(2007. 2. 28).

3) EU는 2000년 3월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스본전략을 채택한 바 있음. 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2005년 2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중점을 두는 리스본전략 수정안(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s-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을 발표, 채택하게 됨.

시아태평양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의제가 등장함에 따라, 개별국이 아닌 지역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짐.

- 단일시장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교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억 9,000만 명 인구와 국내 총생산 1조 달러 규모의 ASEAN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함.

- ASEAN은 예상목표보다 5년 이른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결정하고, 무엇보다도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에 주력함.

■ ASEAN 회원국들은 경제블록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FTA 체결을 강조하는 한편, EU를 올바른 경제통합의 선례로 삼고 양측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감.

- ASEAN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4대 목표 중 하나로 '글로벌시장으로의 통합'을 제시하며 ASEAN 차원의 FTA를 통한 경제자유화를 강조함.

- 그 외에도 △ 단일 시장 및 단일 생산기반 구축 △ 역내 경쟁력 강화 △ 균형적인 경제발전 등이 AEC의 세부 목표로 제시됨.

- ASEAN은 EU와의 지역협력수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바, EU를 직접적인 통합모델로 제시하지 않지만, EU의 경험에서 통찰력을 얻겠다는 입장을 보임.

■ ASEAN은 핵심 교역 및 투자 파트너이자 역내 통합의 모범사례인 EU와의 단계적 경제협력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년 EU·ASEAN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함.

- ASEAN과 EU는 1977년대 수교 이후 교역과 상업 등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를 형성해나감.

- 2003년 EU 집행위원회는 두 경제블록 간 교역 및 투자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EU·ASEAN 자유무역지대구상(TREATI: Trans-regional EU·ASEAN Trade Initiative)을 제안하고 2004년에는 TREATI를 통해 논의할 우선분야를 선정함.

- △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 및 열처리 기준, △ 공산품 기준 및 교역 시 기술장벽 △ 산림과 목재 제품 관련 이슈 △ 무역원활화 및 투자협력 등의 네 부분이 우선적인 통합영

역으로 선정됨.

- 2007년 ASEAN과 EU는 그동안 추진해온 단계적 경제협력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역 대 지역 간 FTA 체결을 결정하고 협상을 시작함.

3. EU와 ASEAN 회원국 간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예상효과

가. EU·ASEAN FTA의 추진 현황

■ EU와 ASEAN은 2007년 5월 두 경제공동체 간의 FTA 협상 추진에 공식적으로 합의함.

- EU와 ASEAN 간의 FTA 추진 준비는 2005년 4월 EU와 ASEAN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Vision Group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고, 2007년 4월 EU 각료이사회는 ASEAN과의 FTA 추진을 승인함.

- Vision Group은 서비스와 투자 부문을 포함하는 가능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협상기간(2년)과 관세철폐 이행기간(7년 이내)을 제시함.

■ 초기에 EU와 ASEAN과의 FTA 협상은 지역 대 지역(region to region)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EU는 기본적으로 ASEAN이 경제통합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간 접근방식을 선호하여 왔음.

■ 협상 진행 중 ASEAN 회원국 간의 입장 및 개발수준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지역 간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별국가와의 협상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함.⁴⁾

- ASEAN에 있어 대외공동협상의 경험이 적다는 점과 역내국 간 산업구조의 차이는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FTA 협상은 힘들다는 주장이 대두됨.⁵⁾

4) V. B. Constantinescu EU-ASEAN 협력담당, (Malaysia National News Agency, 2008. 8. 6): 이러한 움직임은 EU-ASEAN FTA 협상에서 일단 라오스, 캄보디아(EU는 Everything but arms program을 통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부여), 미얀마(인권문제 논란)를 제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표면화되기 시작함.

5) Razeen Sally(Bernama, 2007. 9. 6).

- EU가 FTA 체결 조건으로 정치·사회적 협력을 강조하는 동반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일부 ASEAN 회원국과의 FTA 협상 가능 여부가 의문으로 제기되기 시작함.⁶⁾
- 유럽의회는 FTA 체결에 앞서 동반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협정의 기준으로 상대국의 인권보호수준을 넣을 것을 제시함.
- ASEAN 내부의 개발수준의 차이로 인해, 협상은 매우 느리게 전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9년 3월 이후 실질적인 협상이 중지됨.
- 일각에서 지역 간 접근방식의 FTA를 포기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ASEAN의 선도국들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할 것을 요구함.
- EU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회, 2009년 12월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 추진에 합의했으며, 2010년 3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함.
- 싱가포르가 1)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하여, 이미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는 점, 2) ASEAN 내에서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 3) 개발수준이 높다는 점 등이 EU가 첫 개별 FTA 상대국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임.
- EU·싱가포르 간의 FTA 협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EU와 ASEAN 기타국과의 FTA에서 모델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개별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EU·ASEAN FTA의 틀을 완성시켜나간다는 계획임.⁷⁾
- 2010년 3월 EU와 베트남은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에 합의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EU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 반면 인도네시아는 아직 EU와의 FTA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EU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의 FTA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

나. EU·ASEAN FTA의 주요 전망

- EU와 개별 ASEAN 회원국 간의 FTA는 관세철폐의 범위와 이행기간에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기존 싱가포르·미국 FTA의 수준에서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100%에 가까운 관세인하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 그 외 국가들은 경제발전 격차와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관세인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 ASEAN 역내 FTA나 한·ASEAN FTA에서도 ASEAN 6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과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간 관세인하 수준 및 속도에서 차이가 있었음.
- 또한 대부분의 ASEAN 회원국은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EU와의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ASEAN 주요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노동조건(Labor Standards),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등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는 EU와는 차이를 보임.
- ASEAN의 각종 비관세장벽은 교역상대국의 입장에서는 높은 관세율 이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므로 FTA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동반되어야 함.
- ASEAN의 자동차시장을 예로 들면, 자동차 수입관세가 30~80% 수준으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특별소비세(excise tax), 자동차인증방식(homologation)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성향이 강함.⁸⁾
-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30%, 베트남은 83%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유지하고 있음.
- ASEAN 국가들의 서비스 개방수준 및 GATS 양허안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부문의 자유화 또한 개별 FTA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6) The Council of the EU, 8194/07(2010). 5. 4).

7) 2010년 5월 26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EU와 ASEAN 간의 장관회담에서는 EU와 ASEAN 개별 회원국 간의 FTA 추진입장을 재확인함.

8)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2009. 6).

표 3. GATS 양허항목 및 서비스협정(EIA) 수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GATS	22	94	45	73	51	67	75	105
EIA	3	1	2	3	2	13	4	2

자료: WTO.

다. EU·ASEAN FTA의 예상효과

■ EU·ASEAN FTA는 EU와 ASEAN 회원국들의 GDP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ASEAN 회원국들이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TSIA(2009)에 따르면 EU·ASEAN FTA 체결 시 시나리오에 따라 EU 경제에 총 GDP 0.02~0.23%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표 4. EU·ASEAN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EU-2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기타 ASEAN
시나리오 1. 정태모형								
GDP	0.02	0.32	0.38	0.24	0.99	0.11	1.92	0.08
실질임금 ¹⁾	0.05	0.53	1.61	0.85	1.23	0.48	3.59	0.13
실질임금 ²⁾	0.04	0.63	1.84	0.93	1.12	0.59	3.7	0.65
수출	0.48	4.23	1.75	0.87	1.99	4.11	10.3	6.11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								
GDP	0.23	3.66	7.42	5.02	12.9	5.39	15.3	4.39
실질임금 ¹⁾	0.21	3.02	8.56	4.84	10.9	6.02	12.6	1.73
실질임금 ²⁾	0.19	3.01	8.7	2.86	9.36	5.23	13.3	2.72
수출	1.09	13.1	8.32	8.95	13.8	10.3	34.9	13.0

: 1) %, 2) %, 3) %

1: 90%, 1%, 25% 가 ,

2: 97%, 2% + plus 가 ,

: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tween the EU and ASEAN(TSIA)(2009)

- EU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작은 ASEAN 회원국은 시나리오별로 EU와의 교역비중 및 기존 관세수준에 따라 0.32~15.3%까지 상당한 GDP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또한 4.23~34.9%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태국은 비교적 낮은 GDP 증가를 나타내는 데 비해 베트남, 싱가포르의 경우 높은 GDP 증가가 예상됨.

- 완전개방에 제일 가까운 시나리오를 가정할 시 ASEAN 주

요국은 대부분 10% 내외의 총수출증가효과를 갖게 되며, 실질임금수준 또한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후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최고 34.9%까지 총수출증가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ASEAN 회원국은 경제구조에 따라 상이한 경제적 효과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수출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생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ASEAN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기업의 전략적인 상품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은데, EU와의 FTA 체결로 투자 유입이 증대되면 수출품목들의 생산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전기설비, 섬유, 의류 부문에서, 말레이시아는 섬유와 의류 및 신발류(TCF)에서, 태국은 운송 및 전기설비, 자동차 및 부품에서, 베트남은 가죽제품과 신발류 등에서 생산이 증대될 전망이다.

○ 한편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FTA 체결로 고부가가치산업 투자가 증대하면서, 특히 쌀 생산이 다소 감소할 수 있음.

○ 뒤늦게 전기 및 기계 설비 시장에 진입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선도국인 태국, 필리핀 등보다 산업역량이 떨어지므로 FTA 체결 이후 해당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투자 감소 및 생산 위축이 예상됨.

표 5. EU·ASEAN FTA의 대ASEAN 산업별 효과

국가명	생산증대산업	생산감소산업
인도네시아	전기설비, 섬유, 의류	자동차 및 부품, 가스 생산, 비즈니스 서비스
말레이시아	섬유, 의류 및 신발류	가스·기계·설비 생산, 광물생산
필리핀	자동차 및 부품, 섬유, 의류	곡물(주로 쌀), 가스 생산
싱가포르	전기설비, 섬유, 보험서비스	기계 및 운송 설비
태국	운송 및 전기 설비, 자동차 및 부품	보험서비스, 목재제품
베트남	가죽, 신발류, 의류,	전기 및 기계 설비, 자동차
기타 ASEAN 국가	섬유 및 의류	기계 설비, 자동차 및 부품

자료: TSIA(2009)에서 요약함.

■ CEPII(2006)에 따르면 EU는 대체적으로 가공식품과 완성차, 기계장비, 화학, 제철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⁹⁾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EU 25개국과 ASEAN은 FTA 체결로 경제적 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EU는 쌀, 가축, 설탕 등의 생산감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생산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ASEAN과 EU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 생산이 많은 국가들의 경우 무역전환효과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실제로 인도, 중국, 스리랑카 등 ASEAN 주변국들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고 0.77%까지 GDP 위축효과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EU·ASEAN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단위: %)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가타 최빈국	최빈국	가타 지역
GDP	-0.01	-0.02	-0.04	0	-0.01	0	0
실질임금 ¹⁾	-0.02	-0.03	-0.09	-0.04	-0.02	-0.01	-0.01
실질임금 ²⁾	-0.02	-0.04	-0.05	-0.04	-0.01	-0.02	-0.01
수출	0.02	-0.35	-0.3	-0.02	-0.36	-0.03	-0.04

1) : TISA(2009)
2) : TISA(2009)
3) : TISA(2009)

■ 한국의 경우에도 ASEAN과 EU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품목이 많으므로 수출잠식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특히 중개교역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와 EU 간의 FTA가 발효될 경우 싱가포르를 통한 ASEAN의 대EU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현재 싱가포르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08년 기준 150% 수준임.

○ EU·싱가포르 FTA에 ASEAN産 중간재에 대한 유사 누적 조항이 포함될 경우 싱가포르는 ASEAN의 대EU 수출을 위한 허브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ASEAN의 대EU 수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9) CEPII(2006)I,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ASEAN.

4. 한국의 대EU 수출에 대한 영향

가. 한국의 대EU 수출에 대한 영향(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 ASEAN과 우리나라의 EU 시장에서의 무역경합현상은 현시비교우위를 통해 측정해볼 수 있음.

- 특정 산업이 대EU에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대EU 교역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음.¹⁰⁾

$$\text{현시비교우위}(RCA) = \frac{X_{iEUk} / X_{iEU}}{M_{iEUk} / M_{iEU}}$$

○ X_{iEUk} : i국의 대EU k산업 수출, X_{iEU} : i국의 대EU 총수출, M_{iEUk} : i국의 대EU k산업 수입, M_{iEU} : i국의 대EU 총수입

○ RCA가 1보다 클 경우, 해당 산업에서 수출을 통한 비교우위가 높음을 뜻하며, 1보다 작은 경우 비교우위가 낮음을 뜻함.

■ 측정결과 ASEAN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를 비롯하여 통신장비, 컴퓨터, 신발류 등이며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수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상위 10개 수출품목은 전체 수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품목 모두에서 ASEAN은 대EU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비교적 하위기술분야인 섬유, 의류(SITC 851, 845, 841) 부문에서는 수출이 수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음.

- ASEAN의 대EU 주요 수출품목들은 반도체 및 통신장비, 사무기기, 전기기계를 제외하고는 한국 수출품에 비해 RCA를 통해서 본 비교우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10) 현시비교우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해당국의 특정산업의 수출비중과 기준 지역의 해당 산업 수출비중 간의 비(ratio)인 Balassa index(BI)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 여기서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음.

$$BI = \frac{X_{ik} / X_i}{X_{wk} / X_w}$$

X_{ik} : i국의 k산업 수출액, X_i : i국의 총수출액, X_{wk} : 세계의 k산업 수출액, X_w : 세계의 총수출액

표 7. ASEAN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RCA

순위	SIT C3	품목	수출비중(%)	수출/수입	ASEAN RCA	한국 RCA
1	776	반도체, 트랜지스터	11.1	1.38	1.12	3.06
2	764	기타 통신장비	8.3	2.69	2.18	11.85
3	752	컴퓨터	7.1	8.95	7.26	1.80
4	851	산발류	5.7	61.05	49.47	0.27
5	759	컴퓨터 부품	4.1	5.07	4.11	3.43
6	515	유기, 비유기 화학물	3.9	5.61	4.55	0.27
7	751	사무기기	3.4	5.87	4.76	8.71
8	821	가구류	3.3	9.47	7.68	0.14
9	845	직물류	3.2	22.98	18.62	0.12
10	514	질소 기능 혼합물	2.5	10.26	8.32	0.48
11	793	선박	2.5	1.39	1.13	252.84
12	541	약품	1.7	1.08	0.87	0.11
13	714	비전기식 엔진 및 모터	1.7	0.49	0.40	0.22
14	841	남성류	1.6	31.57	25.58	0.09
15	772	전기회로 개폐기기	1.6	0.88	0.72	0.50
16	897	장신구	1.6	4.73	3.83	0.54
17	848	의류 및 부속품	1.5	36.79	29.81	0.46
18	842	여성류	1.4	15.02	12.17	0.11
19	874	계측, 제어기기	1.3	0.59	0.48	0.15
20	778	전기기계, 장치	1.3	1.44	1.17	1.38
21	893	기타 플라스틱	1.2	2.94	2.38	1.10
22	741	가열 냉각장치	1.1	0.79	0.64	0.33
23	785	이륜차	1.1	4.97	4.03	0.97
24	763	음성, 비디오 재생기	1.0	35.57	28.83	9.28
25	771	전기발전 기계류	1.0	1.95	1.58	0.48
26	625	타이어	1.0	6.37	5.16	15.60
27	884	광학용품	0.9	3.39	2.75	2.04
28	899	제조업 잡제품	0.9	3.07	2.49	0.40
29	512	유기화학물	0.8	5.07	4.11	0.10
30	635	목재제품	0.8	28.94	23.45	0.10
상위 10개 품목 비중			52.4			
상위 30개 품목 비중			78.2			

■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통신장비,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나타나며 주요 품목에 대한 편중현상이 강하게 나타남.

- 주요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ASEAN에 비해 항목별 편중현상이 큼.

○ 특히 상위 4개 품목인 통신장비, 선박, 자동차, 반도체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1%를 차지함.

- 상위 10개 수출품목에서는 모두 수출이 수입을 크게 상회하는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박, 통신장비, 강판, 타이어, 광학장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EU 시장에서 컴퓨터 및 관련 부품, 광학용품, 전기기계, 가전용 장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ASEAN 제품 간 경쟁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대EU 20대 수출품목 중 컴퓨터 및 관련 부품, 광학용품은 ASEAN의 대EU RCA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ASEAN의 대EU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우리 제품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전기기계, 가정용 장비 부문에서도 RCA를 통한 경쟁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4대 주요 수출품목(통신장비 및 선박, 자동차, 반도체)의 RCA는 ASEAN의 RCA를 크게 상회하므로, FTA로 인해 ASEAN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8.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RCA

순위	SIT C3	품목	수출 비중(%)	수출/수입	ASEAN RCA	한국 RCA
1	764	기타 통신장비	23.1	18.62	2.18	11.85
2	793	선박	15.8	397.4	1.13	252.84
3	781	자동차	8.6	3.25	0.14	2.07
4	776	반도체, 트랜지스터	6.6	4.81	1.12	3.06
5	871	광학장비	4.5	15.63	0.55	9.95
6	784	자동차 부품	2.2	1.60	0.28	1.02
7	778	전기기계, 장치	2.1	2.16	1.17	1.38
8	752	컴퓨터	2.1	2.83	7.26	1.80
9	625	타이어	1.9	24.52	5.16	15.60
10	674	단순 공정 강판	1.7	32.74	0.31	20.83
11	759	컴퓨터 부품	1.5	5.39	4.11	3.43
12	775	가정용 장비	1.4	6.22	2.88	3.96
13	884	광학용품	1.1	3.20	2.75	2.04
14	772	전기회로 접속기기	1.1	0.79	0.72	0.50
15	713	내연기관	1.0	0.50	0.17	0.32
16	574	폴리아스터 외 무기화학물	0.9	3.84	0.53	2.44
17	751	사무기기	0.9	13.69	4.76	8.71
18	675	평판압연합금강	0.8	0.63	0.06	0.40
19	898	약기	0.8	3.37	1.53	2.15
20	741	가열 냉각장치	0.8	0.52	0.64	0.33
21	723	토목공사장비	0.7	1.09	0.06	0.69
22	761	TV 수상기	0.7	9.11	8.70	5.80
23	695	수공구 및 기계용 공구	0.7	3.73	0.17	2.37
24	582	플라스틱 막, 필름	0.6	3.04	0.32	1.93
25	699	비금속 제품	0.6	0.94	0.37	0.60
26	572	스티렌	0.6	110.0	0.84	70.02
27	743	선풍기 및 송풍기	0.6	0.27	0.19	0.17
28	771	전기발전 기계류	0.6	0.75	1.58	0.48
29	874	계측, 제어기기	0.6	0.24	0.48	0.15
30	773	기타 배전용 장비	0.5	1.86	0.39	1.19
상위 10개 품목 비중			68.4			
상위 30개 품목 비중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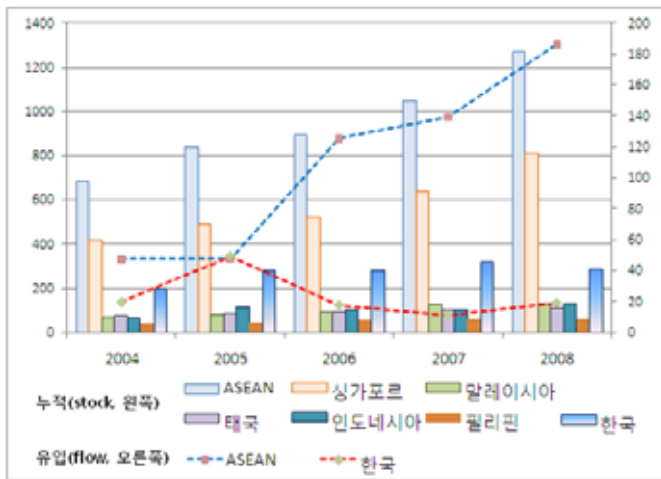
나. 투자 전망

■ EU의 대한민국 투자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하여, 대 ASEAN 투자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EU의 대싱가포르 투자는 2008년 EU의 대ASEAN 투자 중 63.8%를 차지했으며,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누적액 기준으로 93%의 증가를 기록함.
- 2004~2008년 EU의 FDI 증감 추이(누적액 기준): ASEAN (+85.1%), 싱가포르(+93%), 말레이시아(+82.3%), 태국 (+43.5%), 인도네시아(+104.2%), 필리핀(+58.8%) vs. 한국(+45.5%)

그림 6. EU의 대ASEAN, 대한민국 투자 추이

(단위: 1억 달러)



주: 누적투자액의 경우 수익 재투자(reinvested earning)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싱가포르의 경우 70%의 EU 투자가 서비스산업부문에 몰려 있어, 지역서비스 및 물류 공급 허브로서의 위치를 굳힐 것으로 전망됨(2008년 누적액 기준).
- EU의 대싱가포르 투자 중 금융·보험 서비스와 유통서비스는 각각 35.8%와 19.3%를 차지하며 2004~08년 기간 중 각각 50.1%와 162.3%의 증가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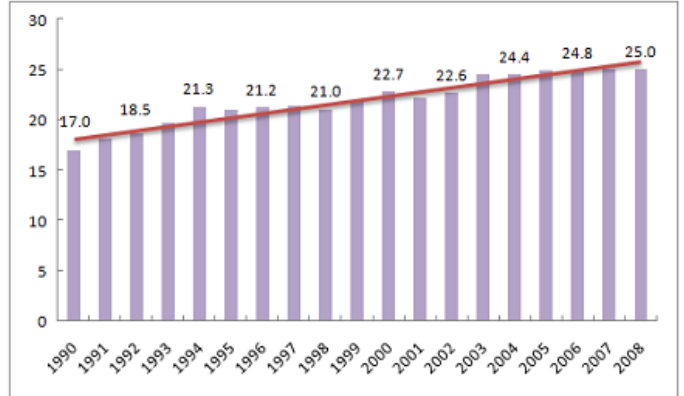
■ EU·ASEAN FTA의 체결 시 EU의 대ASEAN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ASEAN 역내시장의 확대에 따라 EU의 대ASEAN 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 2010년 1월부터 ASEAN 6개 선발국 간의 역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향후 역내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¹¹⁾

그림 7. ASEAN 역내 교역비중 추이(1990~2008년)

(단위: %)



자료: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 한편 2010년 1월부터 ASEAN·중국 FTA가 발효됨에 따라 EU가 ASEAN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강화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
-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투자가 ASEAN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ASEAN產 유럽기업 제품들과 경합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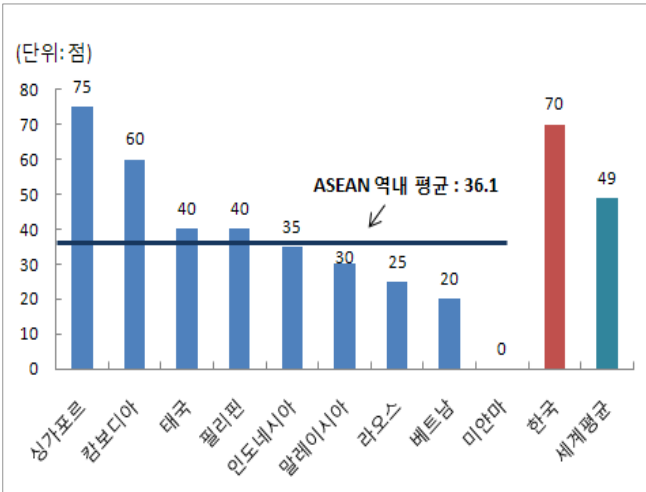
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는 EU·ASEAN FTA 체결로 기대되는 투자전환효과에 대비하여 투자유치조건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ASEAN 회원국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투자여건이 좋지 않고, 싱가포르도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만 가능함.
- 2010년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Freedom)의 투자부문점수를 살펴보면, 75점을 기록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70점을 기록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ASEAN 역내 평균 투자부문점수는 36.1점으로 세계평균을 하회함.

11) ASEAN 선발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010년부터 역내 관세를 철폐했으며, 후발 가입 4개국은 2015년까지 역내 관세를 완전철폐할 예정임.

그림 8. ASEAN 경제자유도지수 투자부문점수 비교(2010년)



주: 브루나이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Index of Freedom(2010).

- 그러나 ASEAN 개별국이 EU와의 FTA 체결에 성공한다면 EU의 대ASEAN 투자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기 체결 FTA를 활용하고 내수시장을 앞세운 대EU 투자유치전략을 시행, ASEAN으로의 투자전환에 대비해야 함.

■ ASEAN 국가와 EU 간 FTA 체결과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한·EU FTA의 빠른 발효와 활용을 통해 선점효과를 누리는 것이 필요함.

- EU·싱가포르 FTA 협상을 제외하고 기타 ASEAN 국가의 경우에는 FTA 협상 완료 및 발효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여러 ASEAN 회원국과의 양립성 조절을 감안할 때 협상 자체부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EU의 내부의 승인절차도 복잡하여 협상 완료 후 발효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따라서 한·EU FTA가 조속히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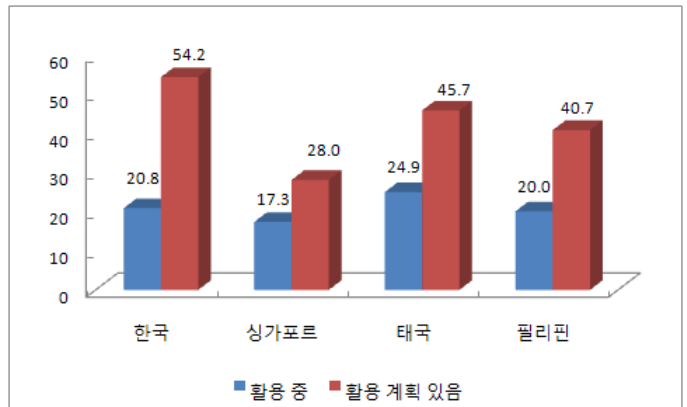
○ 2010년 6월 11일 유럽의회 대표단 크리스티안 엘러 단장은 EU 의회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2010년 말까지 처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연내 발효가 기대됨.

■ 나아가 우리나라는 FTA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조사에 따르면 ASEAN 국가의 FTA 활용률은 태국이 24.9%로, 필리핀이 20.0%, 싱가포르가 17.3%로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도 ASEAN 수준과 비슷한 20%대에 머물고 있음.

- 특혜관세 활용률이 계속 낮게 유지될 경우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도 투자한 시간과 비용대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림 9. 한국과 ASEAN 3개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Asian FTA: Trends and Challenges(2009).

- 우리나라는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업에 비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중·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EU와 ASEAN 개별국 간 FTA가 체결되면 EU의 중국시장 접근 또한 용이해지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부문 위주의 FTA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EP